

굽이도는 강 흐름의 변화를 훑어보다

국립민속박물관, '영산강의 포구와 장시' 발간 영산강 유역 농촌 주민들의 변화된 생활상 기록



국립민속박물관은 영산강 유역 주민의 삶을 기록한 조사보고서 '영산강의 포구와 장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8년부터 수행한 '한강수로와 어로문화', '금강 수로와 식문화', '낙동강 수로와 수물이주민'에 이은 수로문화 조사의 마지막 결과물이다.

보고서는 영산강의 지리와 주민의 생업 변화, 상인들의 모습, 농촌 정기시장의 변모 양상을 다루고 있다.

먼저, 영산강 유역 대표적인 농촌 정기시장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나주 영산포는 과거 어시장이 발달한 곳이다. 하구인 건설로 뱃길이 끊기면서 영산포 시장은 장세가 위축됐으나

여전히 인근 지역에서 가장 큰 정기시장 중 하나다. 이곳은 인구감소와 시장 위치 변화로 장세가 많이 위축됐다.

다음으로 무안 일로시장은 시대별로 위치와 시장명에 변화가 있었다. 조선시대 남창장, 일제강점기 삼향장, 오늘날 일로장으로 시장명이 바뀌었다. 또한 기차역이 시장 위치와 시장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번째는 영암 독천시장이다. 한때 가까운 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거래됐던 곳으로 인근 마을 사람들은 갯벌을 통해 생계를 이어갔다. 이 지역이 바다와 가까웠음은 향토 음식인 낙지볶음과 갈낙탕을 통해 그 모습을 어렵게 유추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에서는 상인들의 거주지와 이들이 어느 시장을 순회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상인들은 대개 거주지에서 자동차로 1시간 내의 일정한 순회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까지는 상인들의 물건을 옮



주석을 앞둔 무안 일로시장의 모습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겨주는 '장차'를 이용했다. 이후 상인들이 직접 트럭을 운행하거나, 도매상이 상인들에게 물품을 배달하면서, 장차 문화는 사라졌다.

한편, 영산포 시장과 영암 독천시장에는 장보기를 도와주는 도우미가 있다. 노란색과 주

황색 등 눈에 띄는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영산포 시장에서 '도우미', 독천시장에서는 '나르미'로 불린다. 2018년부터 시작된 '시장 도우미' 사업은 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에서 농촌 정기시장과 지역사회의 자구책이라 할 수 있다.

또 보고서에서는 1970년대 나주 구진포에서 부친이 나룻배를 운영했다는 제보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해당 나룻배는 구진포와 진포리를 연결했고, 배삯은 보리 한 되 정도 가격이었다. 강을 건너는 정해진 시간은 없었고, 대개 5-6명을 태우면 강을 건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하구언의 건설로 인한 변화 양상 또한 언급하고 있다. 본래 영산강에는 어선들이 드나들었다. 그러나 바닷길이 막히고, 다리가 건설되면서 포구 및 나루터, 어시장이 소멸했다. 조사 과정에서 만난 영산강 일대 주민들은 강물과 바닷물이 서로 원활히 소통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최명진 기자



과거 남해만과 영산강의 경계였던 뽕탄진(사진왼쪽), 영산강의 고기잡이배.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부정형의 언어로 그려낸 '스크래치 가득한 세계'

백설이 유고시집 '켓스크래치' 발간

스물다섯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백설(사진) 시인의 유고시집 '켓스크래치'(문학동림)가 발간됐다.

1996년 인천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성장한 백설이 시인은 2015년 한국예술종합학교 극작과에 입학해 매거진 'K-Arts', 한국예술종합학교 신문사 기자로 활동했다. 뛰어난 문학적 기량과 열정으로 장래가 촉망됐으나 지난해 4월 유명을 달리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시집에는 그의 유작에서 고른 45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고양이와 사람에 관하여', '돌아온 문탁 괴물', '부목 채집' 등 세계에 대한 시인의 비극적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시편들과 '투입구에 사물을 넣지 마십시오', '기두', '스파 미도리', '모자를 찾아서' 등 사랑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생에 대한 회귀를 '모자'를 찾는 행위로 노래한 시편들, 그리고 '잠자리 세기', '공복', '폐쇄병동' 등 현실과 단절된 세계에서 죽음을 암시하는 시편들이 담겨있다.

스크래치로 가득한 세계. 시인은 계획하거나 정련할 수 없는 세계와 존재의 불협화음을 스크래치하듯 그로테스크한 부정형의 언어로 그려냈다. 시인의 시가 강렬한 것은 그의 삶이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우리가 늘 겪는 일상의 세계 너머, '백설이라는' 시인의 세계에 이미 들어가 있었다.

또한 이번 시집에는 시인의 스승이었던 안희연, 이영주 시인과 권희철 문학평론가가 각각 쓴 해설과 발문, 표사가 담겨있다.

이영주 시인은 이 책에서 그를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

"나는 그의 세계가 불타올라까 걱정이 됐다. 합평 시간에 자주 말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슬픔을 전파하면 다들 부담스러워할 거야. 백설이, 조금 더 미적 거리를 두어 보자. 그럴 때면 백설이는 눈을 빛냈다. 선생님, 저는 이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미적 거리 따위가 진실을 말할 수 있나요." /최명진 기자



비록 더 이상 그의 새로운 작품들을 만날 수는 없겠지만, 시인의 시에 대한 열정은 그의 에세이 '풀려나는 존재, 운동하는 가능성 - 시와 리듬'을 통해 느껴볼 수 있다.

"군건하게 맺힌 결사에서 존재를 풀어주는 일, 그런 일을 누가 하는가? 바로 시인이다. (중략) 풀려난 존재는 어디로든 뛰어 나갈 힘을 지니고 있다. 마구마구 뛰어오르고 뿔어나간다. 불안하게 흔들린다. 그 속에서 존재가 가진 '리듬'이 발견된다. 내가 되고 싶은 시인은 이 불가능적인 리듬을 가능하게 하는 자다." /최명진 기자

새로 나온 책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김재운 지자

고 김재운 시인의 1주기를 맞아 출간된 유고 시집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는 뜨겁게, 울곧게 세상을 위협했던 시인의 삶과 고통 그리고 시인이 온전히 품고 있었던 희망을 정갈한 언어로 담고 있다. 시집 속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방'과 '벽'은 시인을 가두는 고통과 고독이다.

시인은 압도당하고 짓눌리면서도 고른 말들로 울고, 견디며 독자들에게 닿는다. 독자들의 좌절과 우울이 밖으로 나와서 시를 만날 수 있게 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인은 '수국', '홍매화', '침꽃'과 '골꽃' 등 많은 꽃들과 '나무'와 '눈', '강'과 '바람'으로 어둠을 걷어내고 자유를 만나고자 한다. /상상·1만3천원



▲진화 인간=방미진 글, 조원희 그림

낯설고 이질적인 '비누 인간'이라는 존재를 통해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어린이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비누 인간'의 두 번째 이야기 '진화 인간'이 출간됐다.

프로젝트 마을에서 유일하게 빠져나온 다엘이 연구소에서 죽음으로 감추고자 했던 비누 인간의 진실을 깨달아 가며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인간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비누 인간에서 진화 인간으로 이어지는 독창적인 세계관과 목격된 울림을 선사하는 주제, 눈을 땔 수 없는 흡인력으로 어린이 문학의 경계를 넓히는 문제작으로 기억될 것이다. /위즈덤하우스·1만3천원



▲게임하고 싶어!=김영진 글·그림

대한민국 대표 아바 작가 김영진이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한결같은 겪어왔을 '게임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선보인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시도 때도 없이 게임을 하고 싶은 아이들의 속마음과,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생동감 있는 그림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냈다. 게임에 빠진 우리 아이 지키기 대작전, '게임하고 싶어!'를 읽으며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의 진심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갈벗어린이·1만4천원



▲제 꿈 꾸세요=김멜라

사랑스럽고 신비로운 힘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몰입시키는 꿈의 세계처럼, 상상을 자극하는 생기로운 질문들을 통해 우리의 현재를 투명하게 비추는 김멜라의 두번째 소설집 '제 꿈 꾸세요'가 문학동네에서 출간됐다.

김멜라는 최근 다양한 작가와 평론가들 사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호명되고 있는 소설가 중 한 명으로, 매 계절 스펙트럼이 넓은 작품들을 발표하며 특별한 성취를 쌓아왔다. 새로운 목소리를 지닌 개성적인 작가가 등장하길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도발적이면서 경쾌한 상상력으로 가득 채워줄 것이다. /문학동네·1만4천500원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